

## 《5천년을 함께 살던 민족에게 희망이 생겼다.》, 《평화의 첫 출발은 백두산》

### 남조선 각계층이 러친 걱정의 목소리

뜨거운 민족애와 포용력으로 북남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열어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대범한 결단에 의하여 마련된 역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은 온 남녘땅을 충격과 환희, 경탄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평양 수뇌상봉과 회담과정을 목격한 남조선언론들과 정계, 사회계 인사들, 전문가들, 각계층 인민들은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연합뉴스》, 《뉴스1》, 《이데일리》를 비롯한 언론들은 이번 북남수뇌상봉의 전과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시민들, 생중계 보며 동시 환호》,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 등의 표제밑에 남북수뇌분들께서 상봉하시고 뜨겁게 포옹하시는 영상을 대전화면으로 띄우고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였다. 동시에 웃음소리,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고, 낮선 사이인데도 서로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었다고 전하였다.

북남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등의 사변을 격정속에 지켜본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수뇌분들의 상봉이 공동적

이다, 하나가 된다는것이 정말 좋고 감격적이다. 통일이 어서 되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북남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격동적인 소식은 남조선언론들과 겨레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울경제》를 비롯한 언론들은 일제히 《남북정상 백두산에서 한반도 평화의지 피력》,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 담았다》, 《천지내준 백두산기운, 평화의 한반도 서광될것이다》, 《백두산방문 축하》 등의 제목으로 북남수뇌분들께서 백두산을 탐승하신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서울신문》은 《남북의 정상이 민족의 성산에 오른것은 정말 대단한, 통일의 징조를 보이는 의미있는 일이다. 백두산에서 남북정상이 새로 모습을 보여준것은 8천만 민족과 전세계에 (우리가 이젠 평화로 간다.)》, 《평화의 첫 출발은 백두산》이라고 전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대서특필하였다.

《백두산천지를 배경으로 선 남북정상의 모습은 누구도 상상할수 없었을것이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두 정상에게 천지를 내준 백두산의 기운은 민족의 하나됨과 평화의 한반도 서광이 될것이

다.》, 《국제사회에서도 두 정상에외가 백두산에 섰다는것만으로도 감동있었을것이다. 백두산은 국제사회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는 그 상징이 워낙 크고 한 민족의 진원이라고 할수 있는 곳여서 그 진서는 훨씬 크다.》 등으로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탐승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정계인사들도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탐승을 축하하는 문명들을 통해 남북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에 오르신것은 참으로 뜻깊다. 백두산은 민족의 혼이 어려있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곳이다. 국제적으로도 남북이 한뿌리라는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백두산방문은 조선반도에서 평전이 종식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남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시민들속에서는 《백두산에로의 그 걸음이 통일로 가는 길 되길 바란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60대의 한 남성은 북남수뇌분들께서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을 대전화면을 통해 크나큰 흥분속에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자기 백두산방문은 조선반도에서 평전이 종식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남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을 대전화면을 통해 크나큰 흥분속에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자기 백두산방문은 조선반도에서 평전이 종식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남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를 터쳤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5천년을 함께 살던 민족에게 희망이 생겼다.》, 《평양에 갈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졌것 같다.》...

서울과 광주 등 남조선각지의 주민들속에서 울려나오는 이 목소리들은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탐승이 우리 겨레모두에게로 이어질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그대로 어려여었다.

역사적인 평양북남수뇌상봉의 나날들에 새겨진 감동적인 화폭들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도 하여금 감격에 찬 목소리를 터뜨리며 감정에 휩쓸려 버리는 경이로운 순간을 연출하였다.

《이루 말할수 없는 감격스러운 상봉이다.》, 《가슴 벅차오르는 역사적인 날이다.》, 《하나가 된다는것이 정말 감격적이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었다.

《국회》회의실에 모여있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부 의장 등은 북남수뇌분들께서 뜨겁게 포옹하시자 참으로 감격적이라고 하면서 열싸인기도 하였다.

본사기자

## 이루 말할수 없는 감격스러운 상봉, 가슴 벅차오르는 역사적인 날

### 남조선 각계의 반향

남조선 각계층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합껏 치며 환호를 터쳤다.

거리들의 곳곳과 여대합실들에 설치된 대전화면앞에 모여있던 서울, 대구시민들은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띄우는 순간 일제히 박수를 치며 서로 붙안고 기쁨을 나누었다.

《이루 말할수 없는 감격스러운 상봉이다.》, 《가슴 벅차오르는 역사적인 날이다.》, 《하나가 된다는것이 정말 감격적이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었다.

《국회》회의실에 모여있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부 의장 등은 북남수뇌분들께서 뜨겁게 포옹하시자 참으로 감격적이라고 하면서 열싸인기도 하였다.

본사기자

의당의 의원들도 《역사적인 날이다.》, 《감회가 새롭다.》, 《홍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박수를 합껏 치며 환호를 터쳤다.

서울의 《정부》청사 회의장에서는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5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세번째로 북남수뇌분들이 상봉하는것만으로도 놀라운것이라는 경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 중구의 한 기자센터에 모인 기자들도 역사적화면을 펼쳐치는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탄성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비행장에 나오신지 4시간이 지난 역사적인 장면을 총칭해서 일제히 고개를 들어 화면을 지켜보았다. 요란했던 휴대용 컴퓨터 타자소리는 일시 정지되었고 바삐 오가던 기자들도 발걸음을 멈추었다고 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북남수뇌

## 조국소식

### 김책공업종합대학 창립 70돐 전국대학생프로그램경연 진행

김책공업종합대학 창립 70돐 전국대학생프로그램경연이 21일부터 25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을 비롯한 60개 대학에서 선발된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68개조로 나눠 경연하였다.

참가자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마음껏 배우며 나라의 정보과학을 떠매고 나갈 미래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자들의 높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연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최천공업대학, 한덕수평양공업종합대학 등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25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식이 있었다.

### 남과 남사이의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인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5개항에서 진행되는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것을 기대하고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인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5개항에서 진행되는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것을 기대하고 있다.

###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생산성과 확대

국토환경보호성,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들에서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생산을 다그치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근에 만난 장나무, 아카시아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50여종에 2 600여 만그루의 나무모를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도시미화에 이바지하고 관광적가치가 큰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고있다.

이들은 나무모들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덧거름주기, 김베기, 물주기 등 비배관리사업을 짜고치고 방출식판수체계를 확

### 파적으로 리용하여 평양단풍나무, 스트로브스소나무, 황목련 등을 튼튼히 재우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돌격운동에 앞장서서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나무모생산성과 확대해나가고있다.

###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추동해 나가야 한다

남과 남사이의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인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5개항에서 진행되는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것을 기대하고 있다.

###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 준공식 진행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돌격운동의 불길속에서 열렬한 애국충정과 비상한 창조기풍으로 산소열범용광로를 비롯한 방대한

주체화대상공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격적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히 완공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 준공식이 25일에 진행되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공사에서 빛나는 위

### 훈을 세운 노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우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김덕훈 내각부총리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주체화대상들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 남조선 노동단체들, 경제계,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9월평양공동선언》 적극 지지

남조선노동단체들, 경제계,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9월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를 두고 《이루 말할수 없는 감격스러운 상봉이다.》, 《가슴 벅차오르는 역사적인 날이다.》, 《하나가 된다는것이 정말 감격적이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다.

이번에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안에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선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또한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 준공식 현장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를 두고 《이루 말할수 없는 감격스러운 상봉이다.》, 《가슴 벅차오르는 역사적인 날이다.》, 《하나가 된다는것이 정말 감격적이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다.

이번에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안에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선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또한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